



## 문화로 상생하는 샘의 터전

### 조치원문화정원

8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시의 샘’ 역할을 충실히 했던 조치원정수장.  
과거 기능의 경계를 허물고 새롭게 복원해  
지역문화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다.

글 정수희 사진 조채은





## 지역주민과 함께 흐른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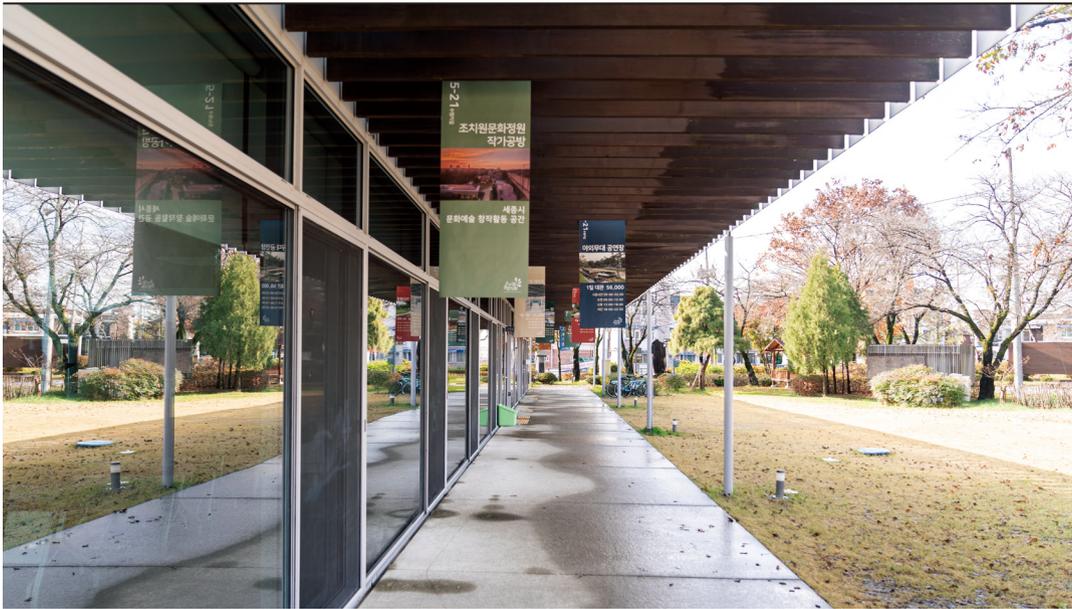
1935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조치원정수장은 약 80년 동안 조치원 일대의 수도를 공급하며 인근 지역주민의 삶과 함께 흘렀다. 당시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 외에도 조치원역 증기기관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한 주요시설이기도 했다. 이후 광역수도망이 구축되면서 쓸모를 잃고 녹이 슬어 빛이 바래졌지만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에 선정, 도시재생을 만나 2019년 7월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조치원문화정원'으로 재탄생했다.

조치원문화정원은 주민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인근 평리근린공원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 10,656㎡ 규모의 문화정원으로 탈바꿈했다. 공간의 건축물 또한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는데, 전국의 정수장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일제 근대 건축물로서 문화재생의 존재성을 새기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201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 같은 해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았다. 또 다른 의미로 지역문화를 꽃피우며 주민들과 삶을 함께하는 것이다.

## 역사적 가치가 지역의 고유성으로

현재 조치원문화정원은 지역주민의 소통 광장을 비롯해 지역청년의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붉은 벽돌 건물인 기억공간 '터'다. 이 공간은 1970년대 증축한 예전 정수장 본관 건물로 리노베이션 당시 최대한 옛 모습을 보존해 복원했다. 이후 2021년부터 조치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린 카페가 자리하다가 현재는 갤러리로 활용 중이다.





### 조치원문화정원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원지길 75-21

조치원문화정원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공간은 ‘뜰’이다. 실내공연 및 세미나, 강연, 연주회, 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 외에 주민행사도 진행한다. 전시공간 ‘샘’은 정수장의 오래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지하공간으로 과거 약품투입실과 하부저수조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지금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지하공간의 벽면에 물이 담겨 있던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묘한 감정을 준다.

이 외에도 그룹활동과 문화예술을 비롯한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는 창작공간 ‘원’, 넓고 푸른 잔디마당과 분수대가 펼쳐진 ‘야외무대공연장’, 미디어아트 전시를 진행하는 문화정원의 상징성을 지닌 ‘급속기·침전기’ 등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콘텐츠를 구성해 지역주민과 관객이 문화예술을 참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선보이고 있다.

### 지역문화의 마르지 않는 샘

붉은 벽돌 건물 ‘터’에는 현판이 걸려 있다. 감천류어람(甘泉流如藍), “감미로운 샘물이 흐르며 쪽빛하늘을



품다”라는 뜻이다. 한때 물길이었던 이곳은 사람 길로 재탄생해 새로운 문화 길의 터전을 삼아 흐르고 있다. 본래의 기능을 잃어도 역사적 공간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지역의 고유성을 지닌 문화 커뮤니티로서 다양한 세대를 품으며 자생할 수 있음도 증명했다. 오랜 시간 축적한 역사를 품고 이제는 지역주민의 일상에 스며든 조치원문화정원의 샘이 마르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